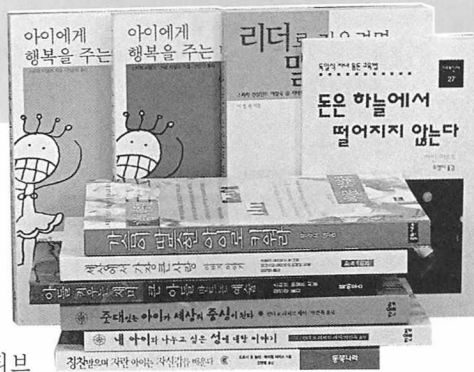


다시 가정의 역할 강조하는 21세기 자녀교육법

균형 있는 가치관과 부모 역할에 중점 둔 자녀교육서

최근 학교붕괴니 하는 말들이 나오면서 가정이 아이들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새삼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출판에도 그대로 이어져 자녀에게 건전한 가치관을 키워 전인(全人)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을 소개한 책들이 많이 출간됐다. 성·용돈·화법·시간관리·감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녀교육 방법에 접근한 이 책들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의 교육학적 연구성과를 담았다는 점이다.



최근 출간된 자녀교육서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학적 연구성과를 담았다는 점이다.

최근의 교육학적 연구성과 담아

최근 우리나라에 각각 두 권의 저서가 번역·소개된 리처드 에어 부부와 스티브 비덜프는 자녀교육을 공부한 바탕 위에서 새로운 가정교육법을 제안한다. 린다 에어와 리처드 에어가 쓴 《쫓대 있는 아이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와 《내 아이와 나누고 싶은 성에 대한 이야기》(박찬욱 옮김, 한울림)는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중점을 뒀다. 이 책이 다루는 가치들은 정직·용기·평온함·자신감·절제력 등으로 지극히 상식적이다.

하지만 이 책은 상식적인 가치관 교육이 가진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예컨대 《쫓대 있는...》에서는 아이에게 용기를 키워주기 위해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기' '나의 장점 목록 만들기' '다짐 목록 만들기' 등의 방법을 제시한다. 또 《내 아이와...》에서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아이 속에 내재한 순결관을 자발적으로 끄집어내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 방법들은 아이 속에 모든 가치관이 이미 형성돼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이에 비하면 오랫동안 상담활동을 해온 스티브 비덜프의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비결》(전순영 옮김)과 《아들 키우는 재미 큰 아들 만드는 예술》(김선경 옮김, 북하우스)은 부모나 아이 모두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아이에게...》는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가면서 자란다고 전제하고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아이는 긍정적인 인간으로 성장해 나간다고

주장한다.

이런 입장은 《아들 키우는...》도 마찬가지다. 분명하게 말하기, 자신의 역할 이해하기 등은 부모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다. 거기다 이 책은 남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깔고 있다. 예를 들어 혈중 테스토스테론의 함량이 남자아이를 들뜨게 만든다고 이해시킨 뒤, 그 이해를 전제로 아이의 행동을 바라보라고 충고한다.

화법, 용돈관리 등 다양한 자녀교육법

도로시 로 놀레와 레이첼 해리스의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운다》(김명열 옮김, 동쪽나라)는 평소의 생활이 아이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너그러운 속에서 자란 아이는 인내심을 배우고 부끄러워하며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운다. 황경식이 엮은 《가슴이 따뜻한 아이로 키워라》(출판시대)는 우리 환경에 맞는 자녀교육법을 모색했다. 부모들도 판단하기 힘든 실제 상황과 해결책을 함께 제시했다. 이들 책 역시 균형 잡힌 가치관을 습득시키는 일이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그 가치관은 부모에게서 배운다는 점을 강조해 앞의 책들과 비슷하다.

한편, 이정숙의 《리더로 키우려면 말부터 가

21세기를 맞아 출간된 자녀교육서는 공교육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지만, 가정과 부모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한다. 이 책들은 학습능력 배양보다는 균형 있는 가치관을 키워주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춘다.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신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함은 물론이다.

르쳐라》(가야넷)와 카린 아른트의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유영미 옮김, 동문선)는 각각 화법과 용돈교육법을 담아 독특하다. 스피치 컨설턴트인 글쓴이가 쓴 《리더로...》는 '긍정적으로 말하도록 하라' '자녀와 주제가 있는 토론을 자주 하라' 등의 방법을 통해 아이를 긍정적인 인간으로 키우는 방법을 소개한다. 《돈은...》은 돈이란 그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과 부모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 그 중에 얼마를 아이에게 할당했는지를 설명해 아이에게 경제 감각을 익히도록 노력하라고 주장한다. 아이를 주체적이고 의식 있는 소비자로 키우는 방법을 담았다는 점에서 지극히 독일적이다.

최근 나온 자녀교육서들은 한결같이 시간을 내 대화를 나누라고 충고한다. 하지만 무턱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올바른 자녀교육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부모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한 다음에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와의 생활에서 모든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프랭크 길브레스 주니어 등이 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장석영 옮김, 현실과미래)은 오래된 자녀교육법을 다루면서도 이들 책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생활용품 구매를 담당하는 '가족 구매 위원회', 물이나 전기를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징수하는 '공익 설비 위원회' 등 기발한 방법이 동원된 길브레스 부부의 자녀교육법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이었다. - 김연수 기자